

참 좋은 교회! 연산교회를 소개합니다.

■ 연산교회 사명선언문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것을 명령하셨고(신6:7), 이것이 곧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길이었다. 다음세대교회가 무너지고 있다고 입을 모으는 이 시대에 다시 한 번 영적 부흥을 가져오는 길은 부모가 자녀에게, 장년이 청년과 다음세대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신앙적 삶의 모범을 보이는 것임을 알고 이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온세대예배와 가정예배에 힘을 쏟는다.

■ 연산교회 3대 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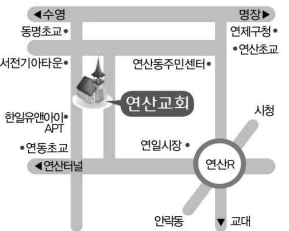
생활 선교사, 주님의 숲, 빛과 소금



예배안내

오시는 길

주일예배		주중모임	
오전 예배	오전11시	새벽기도회	오전5시30분
오후 예배	오후 2시30분	수요기도회	저녁 7시
청년부모미	오후 1시30분	전도대	화 오전10시 목 오후 3시
공방	오전11시 오후 1시	중보기도	정해진 시간
꿈나무	오전11시 오후 1시30분		
온세대 예배	매월 넷째 주일(오전예배)		
온가족새벽기도회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오전6시)		



- 부산광역시 연제구 쌍미천로 92
- 051)862-1172
- www.yeonsanch.co.kr
- 유튜브 : '연산교회' 검색

섬기는 분들

교역자	장로	예배성김
위임 목사 김지원 부 목사 김동일 유명희 전도사 박새형 협동전도사 정성광	시무장로 양천식 한상우 이민주 이영선 김인모 이종선 신승준 은퇴장로 권태환 이재홍 임근우 김재영 정찬일 조미숙 황성국	지휘자 박보희 최희숙 오르간 서희경 피아노 권송이 김해든

공동체 소식

교회소식과 교우소식을 전합니다.

■ 예배 및 모임 ■

1. 성령강림주일 & 온세대예배 오전예배. 글로리아를

• 오늘의 암송구절 (막4:8~9)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삼십 배나 육십 배나 백 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2. 장년부 교회학교 오후1시30분. 글로리아를

3. 목장 모임의 날 정한 시간 및 장소

■ 교회소식 ■

1. 연산친교회 5/31(주일) 점심식사 후

• 기존 친교회 : 탁구 친교회(이선영 권사), 산책 친교회(최희숙 권사) 은혜의 발걸음(김미숙 권사), 영화광상 친교회(김태형 집사)
 • 새롭게 등록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친교회는 사무실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2. 온가족새벽기도회 5/30(토) 오전6시. 글로리아를

• 기도 : 서분이 권사

3. 마더와이즈 회복1기 모집

• 대상 : 30,40대 여성(10명)
 • 일시 : 6/13(토)~7/25(토) 매주 토요일 오전11시
 • 장소 : 소그룹실1(4층) • 회비 : 16,000원
 • 신청기간 : 5/31(주일)까지 • 신청서는 로비에 있습니다.
 • 육아 돌봄 및 차량 지원합니다.

4. 마더와이즈 육아 돌봄 도우미 모집

• 일시 : 6/13(토)~7/25(토) 8주간
 • 시간 : 오전10시30분~오후12시30분
 • 신청은 사무실로 하시길 바랍니다. • 문의 : 유명희 목사

5. 신앙생활 기초반 모집

• 대상 :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 기초를 다지고 싶은 분들, 교회에 대해 알고 싶은 분들
 • 일시 : 6/7(주일)~6/28(주일) 4주간, 오후1시. 소그룹실2(5층)
 • 신청기간 : 5/31(주일)까지 • 신청서는 로비에 있습니다.
 • 문의 : 김동일 목사

6. 성경 500독 이어달리기

• 414 이영선 장로 • 415 이보영 권사

7. 식사&후식 제공 양천식 장로, 이은영 권사(감람산 목장) 딸 결혼 감사

8. 떡 제공 박정현 집사, 전은경 권사(그리심 목장) 기도해 주심에 감사

9. 주방봉사 신승준 김화숙 이경화 진영림

10. 식당봉사 이선영 윤경민 오시윤 이주형

교회 금주 공동기도제목

모든 공예배시마다 함께 기도합니다.

- 교회 - 귀를 열어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도록
- 나라 - 남북 평화통일, 북한 복음화를 위하여
- 성도 -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대한예수교 장로회 연산교회 YeonSan Presbyterian Church 위임목사 김지원	교회창립 1969년 4월 27일 우리의 사명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들 표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롬1:17)
---	--

주일예배		오전 11시
(성령강림주일)		김지원 목사
* 예배로 부름	요4:24	인도자
* 입례송		성가대
* 기원		인도자
* 경배와찬양	19장	다같이
* 참회의 기도		다같이
* 고백의 기도		인도자
* 사회의 선언	롬8:1~2	인도자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성서교독	12번	다같이
찬송	369장	다같이
공동기도		다같이
기도		오예찬청년
찬양	우리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성가대
성도의 교제		인도자
성경봉독	막4:1~9(신58p)	김금지청년
말씀선포	「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	김지원목사
* 찬송및봉헌	말씀 앞에서	다같이
* 결단의기도		다같이
* 봉헌기도		김지원목사
* 축도		김지원목사
* 파송의 찬양	함께 지어져 가네	다같이
* 표시는 일어섭니다. / 파송의 찬양 1절을 부르신 이후 자연스럽게 나가시면 됩니다.		

다음주 담당자

다음 주 기도		봉사	
주일예배	이종선 장로	봉헌	김 옥 집사
오후예배	친교의 날	주방봉사	김 옥 김미숙 최현우 김주하
수요기도회	진영림 집사	식당봉사	김화숙 이경화 오시윤 이주형

오후예배

오후2시30분 / 글로리아홀

수요기도회

저녁7시 / 글로리아홀

매월 4주는

장년부 교회학교

&

목장 모임의 날입니다.

•경배와찬양 | 다같이

•기 도 | 이경아 집사

•성경봉독 | 눅11:5~13(신111p)

•설 교 | 박새힘 전도사

「 체면을 버려라 」

•중보기도회 | 다같이

•축 도 | 김지원 목사

새벽기도회

새벽5시30분 / 글로리아홀

아들람 하우스 현황

- 에스더,욥기 -

김지원 목사

< 김미숙 선교사를 위한 기도 >

-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 남편의 외국인등록증 갱신이 지체 없이 처리되도록
- 6월 하순에 소속(오영선교회) 사역자들을 위한 수련회를 위해
- 5월 25일 밤 출국까지 시간활용을 지혜롭게

5월 교회력 및 사역일정

선교사역

• 5/24(주일)	성령강림주일,온세대예배 장년부교회학교 목장모임
• 5/30(토)	온가족새벽기도회
• 5/31(주일)	친교의날(2)

• 국내교회 : 해운중앙교회, 물댄동산교회 능력과평강교회
• 선교단체협력 : CP, WEC, TMC 봄봄미니스트리
• 해외선교 이준기, 이은실(파송-캄보디아) 양 파블루스 선교사(후원-T국) 이상주 선교사(후원-필리핀) 아들람 하우스(선교사 쉼터)

목장모임

목장모임에 사용하실 수 있는 자료입니다.



..8.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10.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14.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좃았더라

사도신경	사도신경으로 목장모임을 시작합니다.
찬 송	기대, 찬송가 384장, 599장 중 택1
설교말씀	“가족을 연결하는 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돕는 베품”로서 살아가도록 하셨으니, 당연히 대인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엔, 만나고 헤어질 수 있는 관계가 있는가 하면, 부정할 수 없는 관계,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끊어낼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가족이죠. 가족사랑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가정, 가문을 보다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내용에 대해 말씀을 통해 살펴보길 원합니다.

가족은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맺어 주셨다.”입니다.(창2:22) 창세기 2장에 보면, “이끌어 오셨다.”는 단어가 한글로는 세 번 나오는데, 히브리어로는 4번이 나옵니다. 22절에 “취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카흐”로, 15절에 “... 사람을 이끌어 오셨다.”라 할 때 “이끌어오다.”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서로를 이끌어서 우리를 가족으로 묶어 주셨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연찮게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고, 그 부모 밑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묶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가족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편으로 가족으로 인해 큰 상처와 아픔을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이유인즉은 이 세상이 하나님을 떠난 죄의 영향력이 가정 안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어린양을 찾듯이, 우리의 가정을 돌보시길 원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생각 하면서 가정을 지키는 힘이, 가족을 연결하는 힘이 무엇인지 룻을 통해 보길 원합니다. 룻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हे력의 집안으로 시집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나오미의 말 앞에, 룻이 고백하는 내용이 1장 16절이지요. 요약하면 “어머니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된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갔을 때의 베들레헴 공동체입니다. 19절을 보면, “..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왜 떠들썩했을까요?” 이때, “떠들며”라는 말에 대한 주석 해석은 “반가워하며, 환영하는 의미의 떠들며..”에 큰 비중을 두고 있었습니다. 즉, “나오미야! 어서와. 가족을 다 잃었지만, 우리가 가족이 되어 줄게, 희망을 갖고 다시 우리와 함께 일으켜 보자.” 라는 의미의 “떠들며”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족보에 모양 여인인 룻이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베들레헴 사람들이 보인 모습입니다. “받아 줌, 사랑해 줌, 대신 책임져 줌”을 의미하는 룻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놀라우신 사랑 (헤세드)”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이런 저런 이유를 다 덮어 두고 “수고했어, 고생했어, 괜찮아, 잘 될거야, 하나님이 은혜 주실거야” 말하는 공동체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공동체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헤세드. 즉, 그 인자하신 사랑이 전파되는 곳이 가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신 사랑”이 충만히 임하길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와 함께 가정이 일어서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복된 가정으로 세워져 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 설교 말씀을 떠올리며 아래 질문에 답해 보세요.

1. 가정을 지키는 힘, 가족을 연결하는 힘은 무엇인가요?
2. 룻기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 설교 말씀을 기준으로 삶에 적용해야 할 내용을 나누세요!

1. 하나님이 이끄시는 가정을 이루어가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을 나누어 보세요.
2. 가정 안에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나누어 보세요.

향기로운 예물

십 일 조 김성섭 김재영 박선희 신승준 오미희 유명희 이민주 이복음 이선영 이성혁 정윤미 조명자 한범희 황현덕

감사헌금 권태환 권현정 김성분 김은호 김인수 김찬희 나영희 박 준 반명호 유명희 윤병희 이민주 이보영 이영란 이영선 이윤진 이재홍 이종선 이한주 이호진 정창식 조미숙 진영림 최진숙 황성국 황신숙 황점옥 황화남

선교헌금 김성섭 박성애 박은희 박희자 서옥선 서희경 양천식 오미희 윤옥자 이민주 이영선 정윤미 조명자 한찬홍

전도헌금 권태환 김임순 박성애 서옥선 양천식 오미희 유명희 윤옥자 이민주 이영선 정윤미 조명자 한찬홍

장학헌금 권태환 김태순 박성애 박은희 서희경 양천식 오미희 윤옥자 이민주 이영선 정윤미 조명자 최진숙

구제헌금 권태환 김임순 김재영 박선희 박성애 서희경 양천식 오미희 유명희 윤옥자 이민주 정윤미 조명자 최진숙

건축헌금 김성섭 김태순 박선희 박성애 서옥선 서희경 양천식 오미희 윤옥자 이민주 이영선 정윤미 조명자

목적헌금 김인모 양천식

주일헌금 장년부

온라인 헌금계좌

헌금하시는 목적에 맞는 계좌에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헌금(십일조, 감사헌금) - 부산은행 113-2012-0651-02 연산교회
- 특별헌금(전도, 선교, 구제, 장학) - 부산은행 113-2012-0654-01 연산교회
- 건축헌금 - 부산은행 113-2012-0657-00 연산교회